

■ 2008년 전문자료집 ■

2008년

우수사례연구집

■ 2008년 전문자료집 - 우수사례연구

☐ 목 차 ☐

◎ 행동수정이 중증장애아동의 자해행동 및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박은경 사회복지사)	5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과업중심모델에 근거한 생활훈련을 통해 일상생활기능 강화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 김경미 팀장)	25
◎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의 성 지식에 미치는 영향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김은숙 팀장)	43

행동수정이 중증장애아동의 자해행동 및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박은경 사회복지사 -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름	박○○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7년 11월 19일 (만 10 세)				
장애명	자폐성장애	급수	1급	중복장애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구 주안7동				
전화번호	032)875-○○○○		핸드폰	019-9916-○○○○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생육사, 교육력, Life-story, 가족사항 포함)

▣ 생육사

- 97년 11월 19일 출생
- 00년 7월 29일 서울신경정신과 자폐성장애 1급 판정

▣ 교육력

- 베데스타 2년 이용
- 엠마누엘 1년 6개월 이용
- 비손 조기교육실 미술 1년 이용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미술치료 이용
- 성산사회복지관 언어/미술치료 이용
- 미추홀 특수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 현재 본 주간보호센터 1년 1개월 이용 중

▣ Life-story

c't의 모는 원하는 임신으로 임신 시 약물복용 질환충격 등이 전혀 없었으나 두 물이후 경기를 1회 보였다고 한다. 신체발달 부분에서는 정상 발달을 보였으나 언어발달 및 신변처리에서 발달연령에 비해 미흡함을 보였다고 한다.

c't는 현재 단어 또는 지도에 따른 간단한 문장 모방으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하며, 대다수의 일상생활기술을 자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존성이 강하여 담당자의 지속적인 보조를 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c't는 미추홀 특수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공격적이고 산만한 행동문제로 인해 학급에서도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 가족사항

c't의 가족은 c't를 포함하여 양친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모는 아동 귀가 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양친 모두 c't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말하였으며, c't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적응단계에서도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6년 5월 1일
이용중인 관 서비스(모두)	주간보호센터
이용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인천 미추홀 특수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3. 사례선정 사유

c't는 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중이다. 06년 5월 c't 초기 상담 시 일상생활기술 수행의 정도가 장애정도에 비해 높아 '방과 후 교실' 이용을 권유하였으나 모의 직장 근무로 인해 c't를 care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여 본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07년 초기이용시부터 c't는 다양한 행동문제 (ex. 지속적인 이탈행동, 본인의 요구가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 때와 장소들 가리지 않는 탈의행동, 머리들 책상에 박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경미한 정도의 자해행동, 다른 사람을 꼬집거나 할퀴는 행동, 머리들 꺾어박는 행동, 물건을 집어 던지는 공격행동 등)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07년 본 사례연구자의 사례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례연구 기간 동안 행동문제가 감소되지 않고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여 같은 그룹 내 타 아동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우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본 사례연구자는 07년 사례연구 결과들 토대로 사례연구를 재 실시함으로써 c't의 공격적 행동문제를 우선적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연구의 필요성

공격행동은 '타인의 몸의 일부를 상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꼬집기, 때리기, 할퀴기 등의 행동양상을 보이는 심각한 행동문제이다. 또한 자해행동은 '자신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중증의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다. 이들 두 행동문제는 타인을 향해, 혹은 자신을 향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들이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서 행동수정 기법이 장애아동의 자해행동 및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연구 목표

- 1) 정적강화 기법이 중증장애아동의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2) 정적강화 기법이 중증장애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3. 사례연구 이론적 배경 및 모델

i.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아동의 문제행동

1) 문제행동 목록

공격양상 \ 유형	공격적 행동 유형
신체적 공격행동	때리기 : 상대방을 손이나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는 행동
	때리기 외 공격성 : 할퀴기, 꼬집기, 물기, 발로차기, 물건으로 찌르기, 물건으로 차기
	자해행동 : 머리박기, 때리기, 물기, 찌르기, 할퀴기,
물건 뺏기	착용한 물건 뺏기 : 타인이 몸에 지닌 물건을 위협적으로 강제로 뺏음
타인에 대한 성적 행동	불쾌한 신체적 접촉 : 타인의 의사와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함.

2) 문제행동의 원인 및 기능분석

문제행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게 되나 중요도에 따라 사회적 요인, 의사소통 지체요인, 미성숙 요인이나 놀이기술의 결핍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인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의 지연이 문제행동으로 유발될 소지가 크다. 자폐성 장애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이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기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동이다. 또한 상호작용 기술이 결여되었거나 결핍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망하는 마음읽기가 어려운 경우 역시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 지체요인은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적절한 기술이 습득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원인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나 필요를 타인에게 표현하거나 타인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없는 경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과거의 행동 중 유난

히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주었던 방법으로 기억되는 떼부리기, 자해행동, 소리지르기 등이나 짜증, 초조함 등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러한 행동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성숙 요인으로 참조해야 할 것은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주 어린 영아가 보이는 행동과 나이가 든 아동이 보이는 행동은 동일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문제행동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나이가 든 아동이 물건을 입에 넣거나 아무거나 집어먹는 행동, 혹은 떼부리기 행동 등이 이에 속한다.

ii.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공격행동, 자해행동, 자기자극 행동 등 여러 행동 문제는 가족이나 임상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심한 장애가 있을수록 행동수정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해결해 가는데 분석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애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기술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내용이다.

1)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기술

가. 행동형성

행동형성 방법은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로 과제들 쪼개어 제시함으로써 과제에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이다. 흔히 과제 분석(Task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목표행동에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어를 가르치거나 처음 행동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방법이다.

나. 행동연쇄

행동연쇄방법은 과제분석 방법을 의미하는데 과제들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과 후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 바지입기들 가르칠 때 입어가면서 보상을 주는 방법과 먼저 입어놓고 마지막 부분만을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어떤 활동이던 처음부터 어렵게 과제들 주면 과제들 시작을 할 수 없거나 도중에 포기하기 마련이다. 이 방법은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쪼개어 가르칠 수 있으므로 성공감을 갖고 가르치는데 좋은 방법이다.

다. 보조법(Prompting) 및 용암법(Fading)

행동연쇄 및 행동형성방법을 활용하여 목표행동을 가르칠 때 도움을 주는 보조방법으로 주어진 과제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모를 때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줌으로써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도움방법의 보조법과 보조수단을 통해 주어진 과제들 수행할 때 일단 과제가 수행되면 점진적으로 도움의 양을 줄여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용암법으로 나뉜다. 이러한 보조법과 용암법을 사용할 때

언어적 도움, 시각적 도움(시범을 보여주기), 신체적 도움(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기), 환경조성(주어진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을 해주는 과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움의 양을 줄이는 시점을 잘 조절할 것과 일단 할 수 있는 과제를 연속적으로 4-5회 수행하고 나면 성공으로 판단, 다음 과제로 진행한다. 도움의 양을 줄 때는 성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보조를 적절히 늘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보상은 지속적으로 주거나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질 때 보상을 준 후, 맨 마지막 단계에서 보상의 양이나 제공빈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된 치료법과 더불어 사용하는 것이 보조법과 용암법으로 적절하게 보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표 1. 행동연쇄를 위한 과제 분석 (예)

5쪽 퍼즐놀이 지도

- (1) 4조각 끼워진 상태에서 1조각 맞추기
- (2) 3조각 끼워진 상태에서 2조각 맞추기
- (3) 2조각 끼워진 상태에서 3조각 맞추기
- (4) 1조각 끼워진 상태에서 4조각 맞추기
- (5) 처음부터 5조각 모두 맞추기

바지입기 : 헨티-짧은 바지-긴바지 순으로 연습함

- (1) 의자에 앉기
- (2) 바지 허리둘 양손으로 잡기
- (3) 한 발 넣기
- (4) 다른 발 넣기
- (5) 의자에서 일어나기
- (6) 허리까지 바지 올리기

※ 인용 : 행동수정을 통한 어린이 문제행동 지도(정보인, 1997), p 28.

라. 자기조절법(Self-control)

이 방법은 초등학교 3-4학년 이상으로 읽기, 쓰기가 가능한 아동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자기관찰(Self-observation)과 자기억제(Self-restraint), 자기계약(Self-contract), 독백훈련 그리고 자기주장 훈련 등이 있다.

자기관찰방법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어느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그 행동으로 인한 손해는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스스로 자기문제를 기록하는 중에 통찰이 온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스스로 기록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 했는지의 신뢰도가 문제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강박

중, 열등감, 공상 등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다.

자기억제 방법은 특정자극이나 상황에서 주로 일어날 때나 충동상황에서 대처행동을 개발할 때 유리하다.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수를 세어 강박적인 사고를 방해하거나 수첩에 메모하기 등의 긴장에 대한 완충장치 개발로 사용된다.

자기계약(Self-contract) 방법은 자신이 배우거나 교정해야 할 어떤 행동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약속을 어겼을 때와 지켰을 때 보상과 벌칙을 스스로, 혹은 부모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외에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독백훈련이나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성격장애 등에게 표현하는 훈련을 직접 훈련해 주는 자기 주장훈련 등이 이에 속한다.

표 2. 자기계약법 예

1. 계 약 자 아동 : 이 ○ ○

부모 : 박 ○ ○

2. 계약내용

영희가 할 일 : 영희는 집에 도착 후 30분 이내에 책상에 앉아 숙제를 완성한다.

부모가 할 일 :

- 1) 영희가 취침시간은 밤 10시로 숙제를 하지 않더라도 10시가 되면 반드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 2) 아침에 숙제를 하다가 늦어도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
- 3) 숙제 이행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보상

영희가 숙제를 정한 시간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컴퓨터 게임을 30분간 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이행 : 2001. 10. 1. ~ 10. 6.

4. 위 계약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영희와 부모가 검토한 후 양자가 원하면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2001. 9. 28.

아동 : 이 ○ ○

부모 : 박 ○ ○

2.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술

가. 고립법

이 방법은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장면을 뜨게 하거나 그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억제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심한 지적장애나 자폐아동의 경우 공격이나 자해 등 심각한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방법은 의자고립법, 구석고립법, 바닥고립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 권리박탈법

권리들 중 다음 문제행동이 있을 때마다 권리들 박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아동에게 유용한 방법인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심한 지적장애 아동에게 토큰의 유용성을 훈련한 후 권리 박탈을 하는 방법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정신연령과 관계없이 권리박탈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숙제들 안하면 TV를 볼 수 없는 것 등이 이 방법에 속할 수 있다.

다. 계약운동법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동작으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바닥에 눕는 문제들 보이는 아동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여러번 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라. 과잉정정법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 이외의 다른 과제까지 확대하여 교정하는 방법이다. 예로서 종이 찢는 문제가 있을 때 하루 종일 방안에서 종이를 찢을 때까지 찢는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3. 기타 가정장면에서 응용 가능한 주요기법과 절차

가. 체계적 둔감화

공포나 불안을 제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인관계의 공포들 조절하고 시험공포, 신경증적 공포, 성불능, 불감증 등의 성적 부적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완반응을 이끌어 불안을 유발시키는 불안유발자극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나. 자기표현훈련

대인관계 문제들 해결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불쾌한 감정이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애정이나 호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할이 주어지고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치료자가 상대방이 느낀 바를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단훈련으로 실시한다.

다. 혐오치료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고통스런 혐오자극을 가하여 문제행동을 소거시키는 치료법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자극이나 구토제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행동을 조정할 수 없는 심각한 행동으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때 혐오자극으로 문제행동을 처벌하면서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다른 행동을 강화해줄 때 효과적이다. 자폐증 아동의 문제행동 지도나 알콜 중독, 약물중독, 흡연, 강박증, 성도착증, 도박, 동성애 등에 사용한다.

라. 긍정적 강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어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강화물로 음식, 수면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나 미소, 인정, 돈, 선물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절차로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내고 장애아동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체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다. 강화절차는 1차적 강화물인 음식물 등과 사회적 강화물인 칭찬 등 그리고 2차적 강화물인 토큰 등의 활동을 통해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마. 행동조성

바람직한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강화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옷입기, 양말신기 등의 신변처리를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다. 행동형성과 행동연쇄방법을 일컫는다.

바. 모방학습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새로운 행동과 반응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뱀이나 공포치료 등 고전적 조건형성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집단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거나 우연학습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사. 토큰경제

바람직한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토큰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이 원하는 권리와 바꾸어 주도록 하는 치료절차로 아동, 장애인의 치료기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각강화로 효과적일 때 지연강화를 훈련하면서 가능하면 원하는 강화항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유지가 강력한 행동을 원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적용

1) 바람직한 행동 증진 전략

가. 원칙

- ① 행동조정에 앞서 할 수 있는 과제들 습득시켜 대치행동을 가르치도록 한다.
- ② 가장 선호하는 활동 중 약간의 노력만 가지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친다.
- ③ 가정에서 쉽게 가르칠 만한 놀이나 과제를 가르치는 것이 쉽다.
- ④ 보상계획을 적절히 세워 자극과 반응간의 연합과정을 습득시킨다.
- ⑤ 장기적으로 보아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토큰경제를 실시한다.

나. 적용되는 행동수정 기법

- ① 행동형성법

- ② 행동연쇄법
- ③ 촉진법
- ④ 용암법
- ⑤ 강화
- ⑥ 토큰 경제
- ⑦ 자기조절법
- ⑧ 3단계 지시따르기 훈련

2)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소거전략

가. 원칙

- 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분석한다.
- ②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정하여 문제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 ③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지 살펴본다.
- ④ 발생한 문제행동을 조정하기 전에 문제행동을 대치할만한 다른 놀이활동이나 지시 따르기 훈련을 한다.
- ⑤ 소거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지침을 간략하게 준다.
- ⑥ 처벌을 사용할 때는 혐오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⑦ 일반화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적용되는 행동수정 기법

- ① 강화소거
- ② 무시
- ③ 권리박탈
- ④ 차별강화(DRO)
- ⑤ 상반행동 강화
- ⑥ 간접상황 제시
- ⑦ 고립(time-out)
- ⑧ 정적 연습
- ⑨ 조건부 운동(계약운동)
- ⑩ 과잉정정, 부가교정

6. 사례연구 방법

1) 초기관찰

① 행동문제의 빈도 기록

기록시간 : 14시-15시(5분 간격으로 행동문제 관찰 후 회당 /로 표시함)

행동유형 : 공격행동(꼬집기·때리기·자해)

날 짜	행동발생횟수	기록자/보조자
08/04/07	////////	박은경복지사/봉사자 양현숙
08/04/14	//////	박은경복지사/봉사자 양현숙
08/04/21	////////	박은경복지사/공의 조형기
08/04/28	//	박은경복지사/봉사자 양현숙

② 문제행동의 원인분석을 위한 A-B-C 분석

유형 날 짜	선행자극 Antecedent	행동 Behavior	후속자극 Consequence	행동 Behavior
08/04/07	· 내관 전 감기약 복용 · 컵물을 혼림	· 과제들 바닥으로 던지고 과제들 지도하는 봉사자들 꼬집고 환귀는 행동	· 과제분량 감소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강화물(사탕) 제공	· 꼬집는 강도가 미약해 짐 · 강화물 제공 후 20여분 정도 좌석 가능하였음
08/04/14	· 미술활동 재료인 종이를 c't에게 나누어 줌	· 받은 종이를 찢어 버림	· 찢은 종이를 다시 붙이도록 함 · 아동에게 제공한 다른 종이를 담당자가 회수 함	· 찢은 종이를 붙이는 것을 지도하는 동안 봉사자의 손등을 계속 꼬집는 행동을 보임
08/04/21	· 신규 봉사자(공의)이 배치되어 c't의 좌석을 지도함	· 옆에 앉은 공의를 밀어 내고, 계속 공의의 손등과 팔 등을 꼬집는 행동을 보임	· 미술활동 종료 10분 전에 c't담당 지도자들 양현숙 선생님과 변경 함	· 봉사자 변경 후 꼬집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음.
08/04/28	· 학교 및 내관 차량에서 행동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칭찬을 받았음	· 담당자가 과제들 제시하자 봉사자의 손등을 가볍게 꼬집는 행동을 보임	· 좌석을 유지하는 c't들 계속 칭찬 하였음 · c't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었음	· 30여분 이상 좌석하여 과제물을 완성하였음 · 봉사자들 꼬집는 행동이 감소 함

▶ 4월 한 달간 c't의 행동 문제 빈도 및 원인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 결과 c't 공격적 행동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 것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 감기와 같은 질병과 작용한 의복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 등에 대한 표현
- 과제물에 대한 회피의 방법
- 담당자의 혐오적 자극 혹은 강한 행동제제 시 반발행동
- 환경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의 표현
- 봉사자 혹은 담당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2) 행동수정을 통한 공격적 행동문제 지도

지난 07년 c't의 사례연구 시 혐오적 자극, 타임아웃 등 행동문제에 대한 부적강화 방법이 공격적 행동에 상충작용을 하여 행동문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본 담당자는 c't의 공격적 행동문제 감소를 위하여 행동문제 원인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긍정적 강화 등의 행동수정 방법을 통해 행동문제를 지도하였으며, 매주 1회 미술 프로그램 시간을 활용하여 c't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① 주 1회(매주 월요일/14시-15시/미술활동) 관찰 및 개입결과

유형 날짜	행동	후속자극	행동
08/05/19	· 과제 수행 거부 · 바지 벨트들 푸르며 '아파요' 반복 · 계속되는 이탈행동	· 바지벨트 분리 ·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핀 착용 · 좌석에 대한 반복적인 칭찬과 머리 쓰다듬기	· 20여분 이상 좌석유지 · 신체적 촉진을 통한 과제수행 · 담당자에게 머리 쓰다듬기 등의 긍정적 강화요구
08/05/26	· 과제 수행 거부 · 꼬집는 행동 반복 · 좋아하는 단어들 반복하며 봉사자가 따라하기들 요구함	· c't에게 면장갑을 착용시킨 후 꼬집는 행동에 대해 무반응 · 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c't가 좋아하는 단어들 따라서 이야기해줌	· 과제 완성 · 20여분 이상 좌석가능 · 면장갑 착용 후 꼬집는 행동에 대해 봉사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꼬집는 행동 감소
08/06/02	· 주어진 미술활동 재료 중 크레파스의 색을 이야기 하면서 호응을 보임 · 색의 이름을 말하면서 봉사자가 색을 칠하도록 유도 하였음	· 색의 이름을 맞출 때마다 c't를 칭찬하였음 · c't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c't가 좋아하는 노래와 머리 쓰다듬기를 실시함	· 30여분 이상 좌석유지 · 신체적 촉진을 통한 과제수행 · 담당자에게 머리 쓰다듬기 등의 긍정적 강화요구
08/06/09	· 과제 수행 거부 · '아파요' 단어들 반복함 · 차량에서부터 계속 담당자와 타아동들을 꼬집는 행동을 보였음	· 과제의 분량 감소 · 과제 수행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촉진 감소	· '아파요' 단어들 반복 · 과제 미완성 · 울거나 짜증을 내며 환귀는 행동(1시간 중 5회 이상)
08/06/16	· 활동재료(점토)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음 · 의자에서 몸을 돌리고 앉는 모습을 보였음	· 봉사자가 신체적 촉진을 사용하여 과제수행을 지도함 · 작품을 완성하면 사탕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 20여분 이상 좌석가능 · 과제를 수행 시 계속적으로 사탕을 반복하여 이야기 함 · 과제를 완성
08/06/23	· 프로그램 주 재료인 색지들 모두 찢는 행동을 보임 · 담당자가 색지들 찢는 행동을 신체적자극을 통해 지도하자 공격적 행동 보임	· 색지 대신 색을 칠하도록 색연필로 재료 변경 · 담당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봉사자가 개별지도 실시	· 공격적 행동 빈도 감소 · 과제 완성

유형 날짜	행동	후속자극	행동
08/06/30	· 프로그램 중 옷에 침을 바르고 갈아입으려는 행동을 보였음 · 옷을 벗는 행동을 신체적 축진을 통해 제지하자 공격적 행동 발생 · 과제수행 거부	·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후크과 상의 지퍼 부분에 옷핀 착용 · c't의 손을 잡고 프로그램 과제를 수행 지도 · 과제를 수행 중 계속 c't가 좋아하는 단어 반복 및 노래 불러 줌	· 옷이 벗겨지지 않자 초반에 짜증을 내다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음 · 긍정적 강화들 통한 프로그램 과제물완성
08/07/07	·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발적인 과제수행이 가능하였음	· 담당자와 봉사자 모두 c't를 칭찬하였음. · 봉사자가 c't가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불러주며 프로그램 참여를 지도하였음	· 40여분 이상 좌석을 유지한 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였음
08/07/14	· 프로그램 과제 수행을 거부하고 책을 보려는 행동이 나타났음 · 책을 정리하도록 하자 담당자들 꼬집는 행동을 보였음	· c't가 보려고 하던 책을 보이지 않게 정리하였음 · 프로그램 과제물을 마친 후 책을 보여주겠다고 반복하여 설명하였음	· 책을 찾으려고 반복적으로 이탈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제지하자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음
08/07/21	· 과제물을 제공하자 봉사자의 손등을 꼬집는 행동을 보였음	· 손에 면장갑을 끼우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도를 실시함	· 면장갑을 낀 후 꼬집행동이 감소 되었음 · 과제물을 완성하였음
08/07/28	· 미술활동 중 바지를 벗고 다른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옷장으로 반복적인 이탈행동을 보였음 · 이를 제지하자 머리들 책상에 박는 자해행동을 보였음	· 자해행동을 무시함 · 여벌 옷장의 문을 잠가 c't가 열 수 없도록 하였음 · c't가 바지 후크를 풀 수 없도록 옷핀으로 바지 후크를 고정 하였음 · c't가 좋아하는 딸기맛 사탕을 강화물로 제공하여 프로그램 과제물을 지도하였음	· 자해행동을 무시하자 자해들 하지 않았음 · 옷장문이 열리지 않자 좌석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봉사자의 신체적 축지에 따라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사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음

유형 날짜	행동	후속자극	행동
08/08/18	· 과제를 수행에 자발적인 모습을 보였음 · 스티커의 색을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었음	· 과제를 참여에 대해 반복적으로 칭찬을 제공함 · c't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쓰다듬어 줌	· 40여분 이상 좌석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지도에 따라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음.
08/08/25	· 색연필 등 미술활동 재료들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음 · 던진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도록 지도하자 담당자의 손등을 꼬집는 행동을 보임	· c't가 꼬집지 못하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떨어져 언어적 촉진을 통해 물건 정리들 지도하였음 · 봉사자가 과제를 지도하면서 c't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쓰다듬어 줌	· 30여분 이상 좌석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 지도 봉사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음
08/09/01	· 내관 차량에서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과제를 지도하는 봉사자에게 반복적인 공격 행동을 보였음	· c't들 다른 테이블로 이동 조치 · 공격행동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아동들에게 강화물로 사탕을 제공 하였음 · 프로그램 강화물을 수행한 아동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박수들 쳐줌	· 담당자에게 사탕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였음 · 사탕을 먹기 위해 제자리에 좌석하는 모습을 보였음
08/09/08	· 프로그램 참여 중 지속적인 강화들 요구 함 (머리 쓰다듬기, 노래부르기 등)	· c't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강화들 제공 하였음	· 신체적 촉진을 통한 과제물 완성 · 40여분 이상 좌석가능
08/09/22	· 프로그램 참여 중 지속적인 강화들 요구함 (머리 쓰다듬기, 노래부르기 등)	· c't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강화들 제공 하였음	· 신체적 촉진을 통한 과제물 완성 · 40여분 이상 좌석가능
08/09/29	· 내관시부터 타아동 및 담당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음	· c't들 타아동과 분리된 테이블에 좌석하도록 지도한 후 c't의 행동을 무시하였음	· c't는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고 '아파요'라고 말하면서 담당자와 봉사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음 · 공격적인 행동 소거된 후 봉사자가 c't의 과제들 지도할 수 있었음

유형 날짜	행동	후속자극	행동
08/10/08	· 내관하자마자 바지들 갈아 입으려고 하였으며 벨트부분이 아프다고 표현함 · 옷장을 열어 옷을 꺼 내려는 행동을 제지하자 자해행동을 보였음	· 벨트들 풀르고 바지 후크가 벌어지지 않게 옷편으로 고정 후 프로그램 참여를 지도하였음 · 과제에 참여하는 c't에 대해 과장된 칭찬을 제공하였음	· 벨트들 푸르고 옷편으로 바지들 고정하자 자해행동이 소거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칭찬을 해주자 반복적으로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주기를 요구하며 프로그램 과제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음
08/10/13	· 프로그램 시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며 타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침 · 소음에 대해 담당자가 입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하도록 지도하자 담당자의 손을 꼬집는 행동을 보였음	· c't의 손에 면장갑을 끼도록 하고 신체적 축진을 통해 과제물 수행을 지도하였음 · 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계속 c't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과제물 참여에 대한 칭찬을 제공하였음	· 면장갑을 끼운 후 c't의 공격행동을 무시하자 꼬집는 행동이 소거됨 · 봉사자의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좌석을 유지하고 과제물을 완성할 수 있었음
08/10/27	· 사탕을 사용하여 목걸이를 만드는 과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보였음	· c't가 목걸이에 끼우고 싶은 사탕을 직접 고르도록 하고 목걸이를 완성하면 본인이 가져가기로 하였음	·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 · 언어적 축진 및 신체적 축진을 통한 과제물 완성 · 40여분 이상 좌석가능

▶ 행동문제 개입 시 c't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공격 행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이 프로그램 참여 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어졌다.

② c't 프로그램 지도 사진 자료



▲점토사용을 거부하여 봉사자가 신체적 촉진을 사용하여 지도 중



▲본인이 선호하는 재료를 제공하자 자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중



▲완성된 결과물을 함께 보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칭찬을 해주자 관심을 보이는 모습



▲크레파스를 던져 c't의 손을 잡고 신체적 촉진을 사용하여 지도 중



▲자해 및 공격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 분리한 후 무시하자 참여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며 공격적인(교집기) 행동을 보여 손에 장갑을 끼우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모습

Ⅲ. 사례연구 결과

본 사례연구는 행동수정이 중증장애아동의 공격행동 및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어졌으며, 07년에 이어 같은 주제와 c't들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07년 사례연구 결과 c't의 공격행동이 소거되지 않고 지속되어졌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여 08년에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행동문제 접근 시 그 기능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폐성장애아동의 경우 언어적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다.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c't의 경우 신체적 통증을 질병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 수행 및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해 및 공격행동을 보였다. 담당자가 c't의 행동문제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도한다면 사전에 공격행동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공격행동 및 자해행동 지도 시 부적강화(예들 들어 타입아웃, 혐오적 자극, 고립 등)의 방법은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공격행동 및 자해행동을 하는 c't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담당자의 지도에 반발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강압적인 제지 및 행동수정 방안은 오히려 c't의 반항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공격행동과 자해행동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체벌 등 강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관심을 끌려는 본래의 의도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 중재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공격적 행동 및 자해행동의 경우에도 행동문제시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문제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사례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07년도 사례연구의 연장선이다. 07년 사례연구 시 주로 행동문제에 대한 혐오적자극 등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소거하는 부적강화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08년 사례연구의 방향을 전환하여 c't의 행동문제 기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들 프로그램에 최대한 반영하여 행동문제의 빈도를 줄이고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진행방법이 주 1회 일정 프로그램 중에만 c't들 관찰하고 기록하는 한계가 있어 보편적인 결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장애아동들의 행동문제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러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행동문제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동문제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윤현숙, 행동수정, 공격 및 자해행동 지도사례, 국정자폐증진료소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주최 학술특
강, 이해와 지원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행동지원, 법인사단 한국정서·행동장애아동교육학회 제21권
제2호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과업중심모델에 근거한
생활훈련을 통해 일상생활기능 강화**

-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 김경미 팀장 -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름	권**	나이	30세	성별	M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빌라 *동 ***호			연락처	032-471-****
최종학력	중졸	결혼상태	미혼	군경력	무
종교	기독교	직업	무	진단명	Schizophrenia
경제상태	월수입	50만원미만(V)			
	주택	c't의 누나명의의 3층 빌라			
	생활비부담자	c't의 수급비		의료비부담자	c't의 수급비
약물복용상태	아침,저녁 2회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호1종	주치의	연세***병원 Dr. 권**
	불규칙적 복용	장애등록/등급	정신장애 3급		
의뢰경위	c't가 퇴원 후 집 근처 동사무소에 갔고,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본 시설을 알려주어 c't의 형과 함께 내방함				

(2) 주호소 내용

1) c't가 제시한 문제

“저한테서 냄새나요? 사람들이 피하는 거 같아요”

“회원에게 말 걸기가 어렵다. 장난삼아 말했는데 확대해서 퍼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2) 사회복지사가 보는 문제

- c't와 가족들의 insight 부족 (재발시마다 c't가 약복용을 하지 않음)
- c't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음
- 대인관계의 부적절함 및 어려움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 개인위생관리, 식생활 관리 되지 않음

2. CASE 선정사유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보제공으로 본 기관에 c't가 직접 전화들 걸어 초기상담을 실시한 case로 법적으로는 사촌형이라는 보호자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인 정신장애인이임. 자신의 병에 대한 insight가 부족해 보이며(현재 불면증의 문제로 수면제들 복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음) c't들 마땅히 몰봐주고 관리해 줄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음. 그리고 정신과적 증상이나 치료력 이외 다른 신체적인 질병이나 약점(만성췌장염, 불분명한 발음, 뿌리만 남은 치아)을 가지고 있음. 고등학교 자퇴 이후 여러 차례의 병원치료를 받

으며 제대로 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었으며 c't는 본 기관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타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임. 하지만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인 스스로에 대한 위생관리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t의 신체적인 건강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당뇨, 저체중 등)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로 개입하고자 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연구의 목적

과업중심모델에 근거한 생활훈련이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사례연구 목표

- (1) 과업중심모델에 근거한 생활훈련이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위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2) 과업중심모델에 근거한 생활훈련이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3. 사례연구 이론적 배경

(1) 과업중심 모델

과업중심모델은 단기치료의 한 형태로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역할 수행의 어려움, 정서적 고통 등 생활상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Reid와 Epstein에 의해 1970년대에 고안된 사회사업실천모델임. 이는 실천가나 다른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한 욕구들 우선시하며, 치료과정을 통해 이들 조율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문제의 원인보다는 해결이 필요한 과업(task)에 초점을 둠.

과업중심모델은 c't의 문제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과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봄. 과업이란 (표적)문제들 감소시키고 치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c't가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c't는 과업을 문제상황에 직접 적용해보면서 자신의 문제들 해결하게 됨. 과업 중심모델은 단기치료이기 때문에, c't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c't가 인식하고 동의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들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c't 문제는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c't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해서 변화하기 원하는 것임. 그리고 c't 문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함.

c't는 자신이 본 기관을 이용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갈등이 생기는 것에 어려움을 가짐. 자신이 짜증과 화를 내는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수시로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갈등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리적인 지지와 해결방법을 얻고 싶어 함. 그리고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이 깔끔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의식하고 있으며, 일시적이기는 하나 직원들의 개입이 있으면 한동안은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하기도 함. 자신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도 알고 있고 미약하지만 동기도 있음. c't는 자신의 욕구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음. 이에 과업중심모델로 개입하고자 하며, 이들 통해 c't의 욕구를 명확히 하고 c't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표현하여 달성정도들 인식할 수 있게 함 .

4. 사례연구 사용 척도

(1) 자기 관리 기술 척도 자가 체크

사회기술영역 중 도구적 기술에 속하는 자기관리기술의 변화들 측정하기 위한 도구임. 원척도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교육 내용에 따라 얼마나 자기간호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자기보고형 58문항 4점 척도로 되어 있음.

“정신분열증 환자 퇴원 교육이 퇴원 후 자기 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유숙자”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음. 자기관리 10개 하위영역 중 식사, 수면, 개인위생, 옷입기에 대한 항목에 대해 사전 / 사후 검사 실시함. 그 중 개인위생과 옷입기 항목을 행동화 하였고 이들 자가 체크하도록 함.

10. 세수와 양치질을 하루에 1-2회 이상 한다	세수, 양치질 하기
11. 2-3일에 한번 이상 머리들 감는다	머리 감기
12. 1주일에 한번 이상 목욕을 한다	목욕 하기
13. 외모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용모를 가꾼다 (손톱깎기, 머리빗기)	손톱깎기/머리빗기
14. 개인 위생처리는 스스로 한다 (면도)	면도하기
15.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깨끗한 옷 입기
16. 속옷을 자주(1-2일에 한번) 갈아입는다	속옷 갈아입기
17. 계절이나 날씨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날씨 적절한 옷 입기

5. 사정

(1) Life-Story

1) 현 병력 및 과거병력

c't의 아버지의 권유로 1996년에 복학하여 고등학교 다니던 중 발병하여 학교 자퇴함. 엄한 담임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자신의 힘든것에 대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c't의 아버지)이 싫었다고 함. c't는 입원시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쳤다고 했다고 함. 잘 씻지 않았고, 흡지도 않은데 점퍼를 껴입었다고 함. 그리고 소리지르고 다니며 동네사람들한테 불 지른다는 말을 했었음. 그리고 어지럽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음. 1996년 첫 입원 이후 1년 단위로 재입원을 했음. 그리

고 기간이 지날수록 입원기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함. 첫 퇴원 후 약이 독해서 잘 먹지 않다가 재발했음. 1997년 당시 환청이 들렸다고 함. 속삭이는 목소리였으며, 하회라 또는 여자였다고 함. 자신에게 철학적인 내용의 이야기들 하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함. 그리고 가끔은 “손을 잘라라, 넌 조폭이니까 어서 나가야지, 자살해라” 이런 내용이 들리기도 했다고 함. 2년 정도 환청이 지속되었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함. 현재는 이런 증상이 없으며 들리더라도 환청인걸 알고 있고, TV나 라디오를 듣고 음식을 먹으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함. 1998년 세 번째 입원 때는 c't가 자랐던 양평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다고 함. c't의 표현에 의하면 “시골망상”이라고 함. 자신이 “시골이다” 라고 외치면서 동네를 뛰어다녔다고 함.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자신보고 미쳤다고 했음. 그리고 약 먹는게 너무 힘들고 독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독살시키려고 입원시켰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함. 1999년 네 번째 입원 때는 잠을 안자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파출소에 끌려갔었고 입원했다고 함. 2001년 마지막 입원 후 퇴원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2004년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의 소개로 본 기관 이용함. 현재 c't는 불면증을 호소하며, 4시간 정도의 수면으로 피곤을 호소함. 그리고 수시로 신체적 통증(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어지럽다, 우울하다)을 호소하면서 잦은 조퇴를 요청함. 위생관리 전혀 되지 않으며, 가정방문 및 개별지도들 해도 그 당시에만 이뤄짐. 대인관계에서 c't는 상대방의 불만에 대해 참았다가, 화들 내고 신체적으로 행동(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에게 다가감)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그리고 하루 1갑의 담배와 7잔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함. 2007년 1월경, c't의 처음 입원때부터 봐 주었던 주치의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위한 서류들 써 주지 않고 약을 독하게 처방한다고 화들 냈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바꿨다고 알림.

(2) 개인력

1) 유아기

경기도 양평이 고향으로 막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농사일을 돕는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남. c't가 태어났을 때 c't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젖이 나오지 않았음. 이에 사촌 누나의 젖을 먹이기도 했다고 함. 자연분만 했었고, 위로 누나가 2명이 있어서 아들로 태어난 자신을 많이 좋아했었다고 함. 아버지는 평소 고집이 세고 c't가 무서워하는 존재였다 함. c't의 아버지는 고향에 잘 계시지 않고 일 때문에 주로 바깥에 나가 사셨고 가끔씩 집에 들리는 편이었음. 아이들에 대한 양육은 거의 c't의 어머니가 했다고 함. c't의 어머니는 전남 광주가 고향으로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면서 경기도 양평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살았음. 가끔 c't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c't의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고 함. c't가 사는 동네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고, 성당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립 유치원에 c't가 원해서 다님. 유치원 다니는 중 c't가 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용달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함. 당시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를 꼬매지는 않았지만 상처를 입었다고 함. 그래서 1달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음. c't는 자신이 산만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장난쳤었다고 말함.

2) 아동기

c't의 가족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c't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두 양평에서 살았으나 아버지가 함께 살 것을 요구하여 1986년 인천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함. c't는 이사하기 전 양평에서 동네 친구들과 잘 어울렸으며, 뽕산에서 술래잡기, 제기차기하면서 즐겁게 놀았다고 함. 그리고 c't의 큰 누나가 주는 용돈으로 군것질을 하면서 행복했었다고 함. 인천으로 이사 와서 c't가 10살이 되던 해 신부전증으로 c't의 어머니가 1987년 사망하였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c't는 낯선 환경과 어머니가 제시하지 않는 상황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다 함.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힘들었다고 함. 성격은 하위권이었음. 그리고 아는 전도사님에게 이끌려 교회다니기도 했었다고 함. 이 때 c't의 아버지는 막노동일로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c't의 아버지가 밥을 해 놓으면 c't가 먹으면서 지냈다고 함. c't의 도시락은 c't 학교 다른 반 친구들이 싸 주었다고 함. c't의 누나는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집에 와서 청소를 해 주었으며 용돈을 주었다고 함. c't의 작은 누나는 계속 집에만 있었으며, 간질로 병원 다니면서 약 먹었다고 함. 가끔 c't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함. c't는 처음에 A초등학교를 다녔으나, 행정구역상 B학교로 옮겨야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때 전학감. 하지만 학교가 멀어서(도보로 30-40분 거리) 1달에 10번 정도 결석을 했음. 이 당시 c't는 학교를 가긴 했으나 길을 몰라서 헤매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본 경찰이 자신을 가출한 걸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함. 이에 6개월만에 다시 A학교로 전학 와서 다녔음. 당시 자신이 학교가는 길을 못 찾는다고 c't의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면 맞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함.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성적이 조금 올라 중위권정도 들었다고 함. 이 때는 친한 친구들과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 보고 공부하면서 같이 어울렸다고 함. 당시 c't의 집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되었기에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했었다고 함. c't의 졸업식 때 c't의 큰 누나는 임신중이어서 가족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고, 나중에 c't의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주었다고 함. c't의 누나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순응하는 편이었으나, 자신은 아버지에게 메를 쓰고 용돈을 달라고 불만을 이야기 해서 자주 혼났었다고 함.

3) 청소년기

중학교 시절에는 초등학교때 보다 젊은 선생님들이 많았고 자신의 문제, 고민에 대해 많이 이해해주려고 했었다고 함. 중2때 담임선생님은 자신에게 도시락을 싸 주기도 했고, 힘들어도 잘 지내라고 격려도 해주었다고 함. c't는 읽는 것만 가능

해서 시험을 잘 못 봤으며, 가끔은 c't의 친구들이 요약해서 주는 등 c't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었음. c't는 15살까지 이불에 오줌을 샀으며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밤중에 일어나지 못해 그랬다고 함.

그 당시에 잘 씻지 않아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났고 이것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함. c't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논다고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함. 그래서 성적이 점점 떨어졌음.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고, 좋지 않은 친구들이 남의 차를 부술 때 자신은 망을 보기도 하면서 어울렸다고 함. c't는 성적이 좋지 않아 인평자동차학교(현재 부평기술고등학교) 정보처리과에 진학하였음. 하지만 또래들의 괴롭힘과 학교 부적응, 불안과 초조 등으로 휴학을 하였다 함.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권하여 담배를 배웠고 c't 아버지 몰래 피웠음. c't는 이 당시 자신의 휴학 이유를 “금단증상” 때문이라고 함. 금단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어지럽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함. 그리고 c't의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되었는데, 매일 걸어서 다니는 것이 힘들었다고 함. 당시 버스로 학교를 다녔는데, 날장이 아니라 몇 장씩 구입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걸어서 다녀야만 했었음. 그 당시 c't의 아버지도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던 때였다고 함. c't의 아버지가 휴학을 막으려고 c't를 야단치고 때렸지만 소용없었음. c't는 집에서 잠자고 텔레비전 시청하고 가끔 오락실을 가면서 생활함.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친구들과 만나서 그 친구 집에서 놀기도 했다고 함. 만화나 텔레비전을 따라하면서 놀았음(레슬링, 후레쉬 맨). 매일 이렇게 놀기만 하니까 c't의 친구 어머니와 형이 c't를 싫어했었다고 함. 그렇게 지내던 중 c't 아버지의 권유로 2년 후, 1996년에 다시 복학하여 19살의 나이에 고 1학년 용접과에 진학하여 학교를 다녔으나 그 때 정신과적 병이 발병하여 자퇴하게 되었다 함. 당시 c't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빠지고 지각한다, 전화들 예의 없이 끊었다’ 등의 이유로 자신이 담임선생님에게 많이 맞았고, 이것이 스트레스였다고 함.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c't의 아버지는 “너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함. 당시 c't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 당시 c't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던 것 뿐이었다 함. 당시 본인을 입원시켰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음.

4) 성인기

1996년 이후로 1년에 한번씩 재발하여 2001년까지 병원 입원함.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기운이 딸리고 약이 독해 하루종일 자게 되면서 약을 중단하기도 했었다고 함. 2001년 c't의 아버지가 c't를 장애등록 하고 빌라(집)을 마련하여 c't의 누나명의로 해주고 위암으로 사망했음. c't는 자신 모르게 c't의 아버지가 장애등록을 했으며, 자신이 왜 장애등록을 해야 하는지 c't의 아버지를 원망했었다고 함.

c't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c't는 현재까지 큰누나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보조금 32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 c't의 아버지 장례식 때 c't의 누나와 사촌형이 함께 이야기 하였다고 함. 당시 c't의 사촌형은 이혼한 상태로 혼자 지내는 중이었기에 c't를 보살펴주는 조건으로 c't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했다고 함. c't는 사촌형이랑 지내는 것이 싫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고 함. 2001년 이후부터는 입원하지 않고 지냈음. 집에서 놀았고 특별히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함. 그러던 중 집 근처 동사무소에 배울것이 있는지 찾아갔다가 본 기관을 소개받고 이용하게 됨. 기관이용 중 개별위생 및 건강관리가 되지 않았고, 심한 장난과 이로 인한 대인관계 마찰이 있었으며 예민한 반응을 보임. 그리고 2004년 9월경 만성폐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가 건강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가족들과 마찰이 있기도 했음. 2005년에는 c't의 사촌형과 다툼이 있었음. c't가 c't의 사촌형과 사이 좋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돈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음. 그러다 사촌형이 주먹질을 하자 c't가 참을 수 없어 부엌칼을 꺼내 삼촌의 배를 찌르려는 몸짓을 취했고, 사촌형이 이를 막아내었음. 큰 소리로 싸움이 나자 이웃사람들이 싸움을 말렸고 경찰이 와서 중재하였음. 이에 c't의 사촌형이 “니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다. 복지관 나가지도 말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활동 해라”라고 말했음. c't의 사촌형은 식비들 내면서 본 기관을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c't는 자신이 사촌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입원시켜서 퇴원시키지 않을수도 있기에 일시종결하고 싶다고 함. 이에 c't의 누나와 연락을 취했지만 c't의 누나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며, c't를 신뢰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였음. 일시종결 이후 c't는 본 기관으로 계속해서 전화해서 근황 전함. c't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료 수화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회원과 함께 무료 국비 지원 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였음. 하지만 모든 활동이 꾸준하지 못하고 중간에 drop 하는 모습이 반복됨.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과 관계형성하면서 지냄. 그리고 가족협회에서 실시하는 기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도 하였음. c't는 다른 회원과 본 기관에 수시로 전화들 하며(일 1회 이상), 이로 인해 타 회원들이 c't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기도 함. 2007년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문제로 c't와 첫발병 때부터 함께 했던 주치의와 다투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김. c't의 사촌형이 한동안 알코올을 많이 먹었으나, 근래에는 술을 끊었으며 다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함.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기관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재이용을 희망하였고, 2007년 8월부터 재이용 중임.

(3) 가족력

1) 가족성원에 대한 기술

-c't의 아버지: 2001년 위암이었고 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치료 받지 않고 사망. c't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조용했으나, 술을 먹지 않으면

자신을 많이 혼냈다고 함. 뭐가 없어졌다고 자신을 혼내기도 했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맞기도 했음.

-c't의 어머니: 1987년 신부전증으로 사망. c't는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사람으로 기억함.

-c't의 큰 누나: 38세, 중3 졸업 후 인천으로 올라가 공장일을 함. 활발한 성격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고 함. 주말에 가끔 집에 들러 c't와 c't의 작은누나한테 용돈을 주고 집을 청소해주었다고 함. 91년 결혼하여 현재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1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전북 장수에 거주하면서 분식집 직원으로 일함. 매형은 농사를 짓고 있음. 현재 c't가 살고 있는 집을 영구 임대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제공하고, 가끔 c't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역할 함. c't가 췌장염이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본 기관에서 가족에게 전화연락을 취했을 때 자신도 현재 힘들기에 동생까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 함. 현재는 가끔 반찬을 보내주고 전화연락하여 건강상태 관리해주고 내과 진료비들 내 주는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c't도 이에 만족스러워함.

-c't의 작은 누나 : 35세, 3살 때부터 간질발작함. 소심한 성격이고 어렸을때는 자기 표현을 잘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고 함. 초등학교 졸업 후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 집에서만 지내다 93년 2월 은혜의 집으로 입소함. 가끔 c't가 강화로 면회 가기도 하며, 가서 특별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면회 오면 좋아한다고 함.

-c't의 사촌형(법적 보호자): 63세, 결혼하여 아들 한명을 두고 이혼하였음. c't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c't를 봐 주는 조건으로 c't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c't의 누나와 이야기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음. 현재 주소지가 c't와 동일하게 되어 있음. 2004년에는 영종도 버스기사로 근무했으며, 3월에 1번 정도 집에 왔었음. 2004년 버스기사 퇴직으로 뚜렷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음. 현재 c't의 수급비로 생활비들 사용하고 있음. 같이 살면서 갈등이 많이 생김. c't의 사촌형도 퇴직이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 알코올, 도박, c't와의 폭력 등 c't와 다양한 갈등을 보였고 이것이 점점 심해짐. 이에 2005년 c't는 사촌형과 폭력이 오가는 과정에서 말로 대들고 주먹으로 대응하던 것에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등 분노 상황에서 공격성이 심각하게 나타났었음. 그리고 c't의 사촌형이 본 기관에 다니지 말 것을 요구했고, c't가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입원시켜 퇴원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1년 반 정도 일시종결 상태로 지냈음.

2) 기본적인 사정

① 신체기능과 건강 : 174에 57kg의 다소 마른 체구. 초췌한 표정에 전반적으로 마르고 누런 얼굴혈색 보임. 2004~2005년 반복되는 급성 췌장염으로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응급입원을 하기도 하였음. 2005년 염증이 저절로 터져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후에는 재발 없음. 2007년 10월 한국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 받음. B형 간염예방접종이 필요하며, 뿌리만 남은 치아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과 나옴. 외관상 보기에다 치아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치석이 많고 전체적으로 이빨의 길이가 짧음. 그 외 다른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받음. 이틀에 한감 정도 흡연함.

② 지적인 면 :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고, 성적은 낮은 편이었음. 간단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셈하기 가능하며, 문장 작성 시 소리나는대로 쓰면서 맞춤법 틀림.

③ 정서적인 면 : c't가 10살 때 어머니의 사망, 작은 누나는 간질로 시설생활, 큰 누나는 경제활동과 시집, 경제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아버지 등 c't 혼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음. 특히 2001년 c't의 아버지 사망 이후, c't는 혼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음. c't의 사촌형과 함께 살기는 하나, 갈등이 많으며 자주 싸우며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음. 혼자 지내는 생활로 c't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두드러져서 기관과 다른 회원들에게 매일 1회 이상의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함. c't는 사촌형과 과거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 혼자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누나에 대한 미움과 분노등이 생각되면 때때로 공격성, 충동성이 느껴진다고 함.

④ 시설이용회원과의 관계 : 지나친 농담과 장난, 상황에 부적절하게 c't가 끼어들거나 참견하면서 마찰의 상황을 만들기도 함. c't의 기준으로 친근감 표현(매일 1회 이상의 안부 전화, 놀리는 듯한 말투)이 문제되기도 함. 가끔 취업한 예전 이용회원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울리기도 함.

⑤ 종교와 영적 특성 : 교회들 다니고 있으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서적인 지지, 안정감을 얻는다고 함.

⑥ 경제, 주거, 교통 : c't의 수급비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약값, 생활비로 사용하나, 다소 빠듯하여 가끔 본 기관 식대를 밀리기도 함. c't는 누나명의로 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주거의 안정성은 있음. 그리고 본 기관에서 c't의 집까지 도보로 15-20분정도이기에 교통비가 특별히 소요되지는 않음.

⑦ 이용자원체계

-공식적 자원 :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정신과 의원

-비공식적 자원 : 가족, 교회 사람들, 사회복지시설 이용 회원

3) 일상생활기술에 필요한 사정항목들

① 기본적 일상생활기술

- 약물관리 : c't가 스스로 약복용하나, 가끔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약을 먹지 않을 때도 있음.
- 위생관리 : 일일 2회 세면, 주 1회 목욕은 하고 있으나 치아 관리는 잘 하지 않음.
- 복장관리 : 추위를 잘 타는 편이라고 하면서 철에 이르게 두꺼운 옷을 입고 오기도 함. 가끔은 격식에 맞게 정장을 입고 오는 등 복장에 신경을 쓰려고 함. 겹옷을 자주 갈아입으나 세탁하지 않고 바꿔입고 오며, 의복을 잘못 건조해서 땀냄새, 시큼한 냄새가 자주 남.
- 건강관리 : 과거 췌장 염증이 터진 후 1년정도 꾸준히 약을 먹었고, 현재는 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임.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것은 없음.
- 수면관리 : 규칙적으로 수면 이루지 못함. 기관 퇴근 후 잠을 자다가 저녁, 새벽에 잠을 깨서 설치기도 함. 새벽에 잠이 깨면 새벽기도를 갔다가 기관으로 출근함.
- 식사해결능력 : 아침은 먹지 않고 출근하며 기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하면 c't 혼자서 저녁을 먹음. c't의 누나가 주는 반찬을 먹거나 반찬가게에서 사먹으며, c't는 밥만해서 먹는다고 함.
- 청소, 세탁 및 정리 : 간헐적으로 자신의 방을 닦는 정도의 청소함. 세탁기에 옷을 모아두었다가 한번에 세탁을 함.
- 대중교통수단이용 : 버스와 지하철 혼자 이용할 수 있음. 낯선 곳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성 있음.
- 물건구매 : 계획적인 구매활동을 하지는 않음. c't의 필요에 의해 특별히 생활물건을 구매 하지는 않지만, 가끔 돈이 있을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류들 사기도 함. 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냥 지낸다고 함.
- 금전관리 : 40만원 정도의 수급비를 받아 세금 10만원, 전화값 10만원, 저축 4만원, 나머지를 생활비, 약값, 담배 구입비로 사용 중. 계획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며, 가끔은 기관 식대를 내지 못하고 돈을 다 써서 다음달 수급비 받고 한번에 내겠다고 하기도 함.
- 공공시설활용 : 다른 회원이나 기관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을 잘 하며, c't가 필요할 경우 관공서, 공공시설(도서관) 이용하면서 지냄. 세금납부와 저축을 하기 위한 금융기관 이용 혼자 가능함.
- 전자용품활용 : c't의 집에는 세탁기, 텔레비전, 전기밥솥, 가스렌지 정도의 기본적인 전자용품 있으며, 이들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음.
- 시간관리 : 가끔 c't가 수면을 이루지 못해 기관에 늦거나 결근하는 경우가 있음. 그 외에는 규칙적으로 시간 엄수함.
- 여가시간활용 :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낮 시간을 보냄. 이후에는 예전 이용회원을 만나 같이 술을 먹는 등의 여가활동 함. 그리고 혼

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에 c't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의 정보를 수집하러 돌아다니면서 시간 활용함.

4) 강점 및 약점

강 점	약 점
-변화에 대한 욕구, 관심 높음 -인사성 매우 좋음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 이야기들하는 등 대인관계 친화력 좋음 -이것저것 해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물어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함 -활동하는 것에 대한 욕구 있음 -생활변화와 직원들의 개입에 대해 수용적인 편임	-위생 관리하지 못해 냄새가 나며, 주위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줌 -insight 없으며, 약 복용 불규칙함 -자신의 건강관리 하지 못함 -건강 상태, 체력 좋지 않음 -가족들의 지지가 약함 -눈치없는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함 -꾸준히 시도하지 못함

6. 개입 과정

(1) 생활지원 프로그램

무료 이미지 서비스	4월 21일 / 6월 16일 / 7월 21일 / 8월 18일 / 9월 22일 / 10월 20일
4월 18일	1. 옷차림과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2.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 3. 옷 세탁법 이해하기
4월 28일	1. 올바른 다림질 방법 이해 2. 단추 다는 법 알기
5월 9일	1. 올바른 다림질 방법 이해 2. 단추 다는 법 알기
5월 16일	식 생활 나누기 (멸치 볶음, 두두치기 만들기)
5월 30일	주거 생활 안의 청소 방법에 대해 알기
6월 16일	세안 및 맛사지
9월 11일	명절 음식 만들기
9월 18일	체지방 측정

(2) 가정방문

일 시	2008. 6. 11	장 소	c't의 집
방문목적	- 생활 / 위생관리에 대한 개별 지도 위해 2차 방문		
내용	3월 1차 가정방문 이후 그동안 담당자와 개별상담으로 조금씩 방 정리를 하도록 했었고 폐품, 재활용 종이 등은 정리하였음. 그리고 c't가 사용하던 베개와 이불은 세탁하지 않고 버렸다고 함. 현재 c't 집의 세탁기가 고장 나서 세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빨래가 필요한 것에 대해 본 기관에 가져와서 세탁해 가져가도록 함. 그 외 이불이나 청바지 등 큰 빨래는 발로 밟아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림. 남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식에 함께 참석 이후, 그 근처에 거주하는 c't의 집에 갑자기 가정방문을 간 것이기에 c't의 방은 1차 방문했을 때 보다 정리가 더 되지 않았음. c't는 자신이 입은 옷과 세탁 한 옷을 구분하지 않고 옷장에 구겨 넣어두었고, 옷장 정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림. 옷장에 구겨 놓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입고 오는것이 반복되면서 c't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을 알림.		
추후계획	c't의 의식·주생활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개별 관리함		

일 시	2008. 7. 28	장 소	c't의 집
방문목적	- 생활 / 위생관리에 대한 개별 지도 위해 3차 방문		
내용	- 주거생활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c't는 베란다 문을 급히 닫는 모습을 보임. 이에 베란다를 열어보니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었고 오른쪽 옆에는 고장 난 세탁기가 자리 잡고 있었음. 이에 c't에게 세탁기의 사용가능 여부를 물어보니 전선이 모두 탄 상황이라 쓸 수 없다고 말함. 거실 바닥은 청소가 되지 않아 검은 먼지가 덮여 있었으며 먼지가 발에 밟히는 상황이었음. 정면에 보이는 방 또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옆 사촌형 방은 바닥의 청소 상태 및 물건의 정리 정돈 상태가 깔끔하였음. c't의 방문은 닫혀있는 상황이었으며 방문 뒤에는 쓰레기 및 c't의 약봉지, 동장 등 중요한 물건을 비롯한 여러 물품들이 섞여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음. c't의 방 바닥은 검은 먼지가 눈에 띄일 정도로 쌓여 있었고 TV와 전화기, 비디오, 컴퓨터 등에도 먼지가 덮여 있었음. 창틀에는 담배꽂초와 잣더미가 있었고, 다 먹은 요쿠르트 병은 내용물이 있는 상태로 굴러 다녔음. - 의 생활 옷장에는 세탁한 옷, 세탁하지 않는 옷이 섞여 구겨져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었음. 빨래들 거실로 꺼내어 세탁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손빨래 할 옷은 욕실로 넣어 c't가 물에 담가 두었음.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 기관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하였고 드라이크리닝이 필요한 옷은 시기들 맞추어 세탁소에 가져갈 것을 당부 드렸음. c't와 함께 c't방의 쓰레기들 봉지에 모두 넣었음. 가정 내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그곳에만 쓰레기들 넣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가정방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며 함께 쓰레기통을 구입하였음. - 식생활 주방의 식기, 밥통 등 주방용품은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만큼 깔끔한 모습을 보였으며 밥통안에도 새로 지은 밥이 있었고 김치냉장고 안에 반찬이 양호한 상태로 있었음. c't의 누나가 지원해준다고 함.		
추후계획	생활지원 프로그램 및 개별상담으로 c't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며 c't와 동의하에 집안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하여 일정한 주기로 함께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이들 통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으로부터 c't의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3) 체크리스트 점검, 사전/사후 검사

일 시	2008. 7. 7		장 소	상담실
훈련주제	- 생활 훈련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자기 관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체크하여 실천 계획 세우기 - 사전 검사 실시			
훈련내용	- 자기 관리 기술 척도들 활용해 자신의 식사, 수면, 개인위생, 옷입기에 대한 상태 파악하기, -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목록 정해서 실천 계획세우기			
	- 5점으로 갈수록 자기관리능력이 높은 상태임을 알리고 개인위생과 옷입기의 점수 향상을 목표달성하기로 함 - 개인위생과 옷입기의 항목을 행동화하였고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자가 체크하기로 함. 필요할 경우 하반기 반복 실행할 수 있음을 합의함			
	10. 세수와 양치질을 하루에 1-2회 이상 한다	세수, 양치질 하기		
	11. 2-3일에 한번 이상 머리를 감는다	머리 감기		
	12. 1주일에 한번 이상 목욕을 한다	목욕 하기		
	13. 외모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용모를 가꾼다 (손톱깎기, 머리빗기, 등)	손톱깎기 머리빗기		
	14. 개인 위생처리는 스스로 한다(면도하기)	면도하기		
	15.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깨끗한 옷 입기		
	16. 속옷을 자주(1-2일에 한번) 갈아입는다	속옷 갈아입기		
	17. 계절이나 날씨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날씨에 적절한 옷 입기		
평 가	- 자가 척도들 통해 c't 스스로 개인위생과 옷입기 부분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 - c't가 스스로 체크한 것을 기준으로 목표들 정하고 이들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c't의 자발성과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 - 척도들 이용해 구체적인 항목으로 자신의 위생상태들 점검할 수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쉬워함. 앞으로 훈련목표도 달성정도들 체크하기 쉬운 횟수들 체크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자 함 - c't는 본 기관에서만 아니라 다른 대인관계에서 냄새난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았기에 자신의 위생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에는 인식하고 있었고, 과업 중심모델을 근거로 개입한 것이 적절했다고 사료됨. 이에 구체적인 행동지침의 달성정도들 통해 습관화 할 수 있게 개입하고자 하며, 3주 동안 자가 달성 체크들 통해 스스로 위생관리에 대한 자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후계획	- 자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하고자 함 - 생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들 지속하도록 함			

- 사전 검사 : 7월 7일 실시 (55점)

항목	1 해당되지 않는다	2 전혀그렇게 하지않는다	3 가끔그렇게 한다	4 자주그렇게 한다	5 항상그렇게 한다
1.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0		
2.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0		
3. 적당한 양을 식사한다				0	
4.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	0				
5. 식사예절을 지킨다				0	
6. 간식을 먹는다			0		
7.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깨어난다			0		
8. 하루에 7-8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0			
9. 적당한 시간의 낮잠을 잔다	0				
10. 세수와 양치질을 하루에 1-2회 이상 한다			0		
11. 2-3일에 한번 이상 머리를 감는다			0		
12. 1주일에 한번 이상 목욕을 한다		0			
13. 외모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용모를 가꾼다 (손톱깎기, 머리빗기 등)			0		
14. 개인 위생처리는 스스로 한다 (면도)			0		
15.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0		
16. 속옷을 자주(1-2일에 한번) 갈아입는다			0		
17. 계절이나 날씨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0		
18.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			0		
19.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옷을 입고 벗는다					0

일 시	2008. 7. 25	장 소	상담실													
훈련주제	- 자가 점검표 1차 종결을 통해 달성도를 체크하고 관리 전후의 변화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제공으로 훈련이 지속될 수 있게 함															
훈련내용	- 자가 점검표 달성정도 체크하기 - 7월 7일과 25일 현재 c't의 변화 모습,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평 가	① 주제에 따른 개별 평가 (날짜)															
	항목	7	8	9	10	11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세수, 양치질 하기	0	0	0	0	0		0	0	0	0	0		0		0
	머리감기	0		0		0		0		0				0		0
	목욕하기			0			0				0	0	0		0	0
	손톱깎기	0		0							0			0		
	머리빗기	0		0	0	0		0		0	0	0	0		0	
	면도하기	0			0			0				0			0	0
	깨끗한 옷 입기	0		0			0		0				0		0	
	속옷 갈아입기	0	0	0			0		0		0	0	0		0	
	날씨에 적절한 옷 입기	0	0	0	0	0		0	0	0		0		0		0

평가	- 세수, 양치질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매일 이루어졌으며, 집에서 하고 오지 못하면 본 기관 출근 후 기관에서라도 위생 관리하려고 하였음.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처음보다는 다소 깔끔해진 인상임. c't는 세탁 후 건조한 깨끗한 옷을 입지만 c't 주변에서는 냄새가 났음. 이에 대해 물어왔고 빨래 세탁 후 몇일동안 세탁기안에 두고 건조해서 입거나, 햇빛이 들지 않는 c't의 집 내부에 옷을 붙여서 건조하는 등 건조방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해 세탁 후 바로 널기, 햇빛이 드는 곳에 건조하기, 세탁물끼리 간격을 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건조하기 등의 방법에 대해 알림. -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대해 스스로 체크하면서 점검할 수 있었고 체크를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함. - 관리 후 다소 깔끔해진 c't의 변화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했고 c't 스스로도 위생관리를 통해 기분도 상쾌해진다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남은기간동안 점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목표 달성 되었다고 생각함.
추후계획	- 최종 점검을 하고, c't가 자신의 위생 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 3주간의 과정을 통해 달라진 점, c't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인식한다

일시	2008. 10.24	장소	상담실													
훈련주제	- 하반기 최종 점검을 하고, c't가 자신의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 3주간의 과정을 통해 달라진 점, c't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인식한다 - 훈련 종결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훈련내용	-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자가 점검표 달성정도 체크하기 - c't의 변화 모습, 기분, 주변사람들의 피드백에 대해 이야기하기 - 훈련 종결 후의 위생관리에 대한 각오, 다짐 나누기															
평가	① 주제에 따른 개별 평가 (날짜)															
	항목	6	7	8	9	10	13	14	15	15	17	20	21	22	23	24
	세수, 양치질 하기	0	0	0			0	0	0	0	0		0	0	0	0
	머리감기		0		0		0	0		0	0	0		0	0	0
	목욕하기				0					0		0		0		0
	손톱깎기			0						0					0	
	머리빗기	0	0		0		0		0	0	0		0		0	0
	면도하기		0			0		0				0	0		0	0
	깨끗한 옷 입기	0			0		0	0	0		0		0			0
	속옷 갈아입기	0		0		0			0	0	0			0	0	0
	날씨에 적절한 옷 입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7월 자가 체크한 후 다시 위생 관리가 소홀해짐. 이에 10월에 한번 더 자가 체크 점검을 하기로 했으며, 전반적으로 7월보다는 초기부터 관리 횟수 잦아짐. - 관리들 통해 타 회원들에게 깔끔해졌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함. 그리고 스스로도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릴 때 냄새나지 않을까 신경쓰지 않고 편안했다고 함. - 훈련전에는 머리가 험클어진 모습으로 출근한적이 많았으나, 지금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다님. 기관 이용중에도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머리매무새에 관심을 가지는 등 전반적으로 깔끔해짐. 손톱에 때가 까맣게 끼어있기도 했었으나 훈련 중 그런 모습이 거의 관찰되지 않음. 하지만 여전히 c't 주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남. c't는 나름대로 씻고 세탁을 하나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른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것 또한 c't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c't의 욕구가 충족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료됨.															

- 사후 검사 : 10월 24일 실시 (65점)

항목	1 해당되지 않는다	2 전혀그렇게 하지않는다	3 가끔그렇게 한다	4 자주그렇게 한다	5 항상그렇게 한다
1.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0		
2.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0	
3. 적당한 양을 식사한다			0		
4.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	0				
5. 식사예절을 지킨다				0	
6. 간식을 먹는다				0	
7.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깨어난다		0			
8. 하루에 7-8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0		
9. 적당한 시간의 낮잠을 잔다			0		
10. 세수와 양치질을 하루에 1-2회 이상 한다				0	
11. 2-3일에 한번 이상 머리를 감는다				0	
12. 1주일에 한번 이상 목욕을 한다			0		
13. 외모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용모를 가꾼다 (손톱깎기, 머리빗기 등)				0	
14. 개인 위생처리는 스스로 한다 (면도)				0	
15.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0		
16. 속옷을 자주(1-2일에 한번) 갈아입는다			0		
17. 계절이나 날씨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0	
18.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				0	
19.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옷을 입고 벗는다					0

III. 결론

이 case 같은 경우는 개인위생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에 진행과정이 원활하게 되었음. c't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알았고, 담당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도만 제안하여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행동 체크리스트를 통해 c't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c't도 위생과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적절했다고 사료되며, 이에 사전 척도 55점에서 65점의 향상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담당자가 문제라고 생각한 영역으로 축소하여 척도들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c't에게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적절했다고 평가됨.

훈련 과정 중 c't의 깔끔해지는 변화 모습이, 다른 회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c't의 대인관계욕구가 충족되면서 c't의 잠재력을 발휘되었다고 생각됨. 이는 담당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c't는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었고 이를 통해 c't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생각됨. 3주간 2회의 단기적이고 행동수정적인 방법으로 c't에게 접근했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t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위생과 건강관리 영역을 식생활과 수면관리, 약 관리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며, c't가 익숙해지고 습관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의 성 지식에 미치는 영향

-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김은숙 팀장 -

I. 서론

1. 목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의 성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주간보호센터는 2007년 6월부터 지적장애 및 자폐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4이며 연령대는 20-27세로 총 이용 인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을지, 누구를 사귈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돈은 어떻게 쓸 것인지, 성적행동과 친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나 장애인들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독립적인 기술을 거의 개발하지 못한다. 이것은 학습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한된 학습경험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동료들처럼 이 시기에 일, 결혼,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성인기에 접어들게 된다. 자폐성장장애인들의 결혼이 오늘날도 법적,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배운 일상생활 기술들을 결혼생활에 접목시킴으로써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누릴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결혼생활 및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성인기에 접어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하여 올바른 성 인식을 세우고자 하며 더 나아가 프로그램 효과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지적장애아는 그 지체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성적 발달에 있어서는 대개 정상적 발달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적장애아의 성적 발달과 특성을 장애정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도 지적장애인

- (1)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적 충동과 욕구를 탐색하고 적응하며 통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2) 성교육과 상담의 구체적인 양식에 언제나 반응할 수 있다.
- (3) 수용할만한 사회규범에 적응될 때 수용할만한 적절한 적응행동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4) 성교육과 상담방법으로 이성이나 동성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다.

2) 중등도 지적장애인

- (1) 이차 성징의 시작이 늦을 수 있다.
- (2) 지적결함과 지역내에서 이동성 결함 등으로 사회 성적발달과 관련있는 적응기술의 수준이 낮다.
- (3) 언어적 단서, 시각적 단서, 학습적인 교육방식을 포함하는 성적 훈련과 상담에 반응한다.
- (4) 보상과 강화들 통해 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성적행동이 가능하다.
- (5)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과 건강이다.

3) 중도 지적장애인

- (1) 이차 성징의 시작이 늦다.
- (2) 성적 충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 (3) 수용가능한 심리사회적, 심리성적인 행동을 형성하거나 수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 (4) 만지기나 자위행동과 같은 행동의 결과들 예측하는 능력에 제한을 가지며, 때로 강제로 통제할 때 심각한 문제들 나타내기도 한다.
- (5) 자신의 기능수준과 내재화하는 능력에서의 결핍으로 인해 특별히 계획된 행동 수정 등의 방법이 요구되기도 한다.

4) 최중도 지적장애인

- (1) 이차성징의 시작이 언제나 늦다.
- (2) 적응행동을 거의 나타내지 못한다.
- (3) 만지기나 자위행동과 같은 행위의 결과들 예측하는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고 행동 프로그램에 제한된 형태로 반응한다.
- (4) 자신의 성적 필요들 자동화된 관능적 방식으로 충족한다.
- (5) 일부 사람들은 계속 자위행위를 하며 때때로 그러한 과도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는다.
- (6) 바람직한 행동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퇴행이 잦고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성적 행동에 대한 특성과 함께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지적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성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에 대해 표현을 하고 성취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들의 성적 권리들 어쩔 수 없이 제한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을 알 수 있는 자유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적장애인들의 성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정상화(Normalization)이론의 적용이다. 정상화란 일상생활에서 지적장애인의 환경과 생활 조건을 가능한 한 사회의 주류들 이루는 환경과 생활조건에 유사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적장애인도 당연히 정상화의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의 성교육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적장애인들을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성교육은 그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며, 또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Winifred Kempton 1988). 최소한 성폭행이 무엇이며, 타인이 자기에게 성폭행을 하려할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성교육을 통해 제대로 가르친다면 이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은 지적장애인에게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과도한 억압은 성적인 표현을 허용했을 경우보다 성폭력, 성착취, 성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적이면서 해로운 결과들 초래하였으며(Ames & Samowitz 1995) 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지적장애인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성적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였다(Kempton 1998)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들 보더라도 지적장애인의 성은 더 이상 통제나 억압되어서는 안되며 각자의 능력과 환경에 알맞은 교육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효과적인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성교육의 목표들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단, 명료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상태에 적합한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접근한다.

넷째,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 실시되는 과보호적 성격의 성교육이 아닌 지적장애인 나름대로의 자기주장, 자신감, 자존감, 자기신뢰감, 그리고 자신의 강점에 대한 자율적 인식이 고양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위해서 가정에서는 아주 어릴때부터 위생지도 및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에서는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치료적 입장은 물론 예방적 입장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예컨대 정서적 유대들 통하여 대인관계들 맺는 방법, 서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관능적인 욕구들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방법, 예컨대 손을 잡거나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고 확인

하는 과정으로서의 성적인 포옹(homonal hugs), 성 관련 비밀 지키기, 성적 만족감에 대한 상호 격려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도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자료, 독립생활성교육, 이영숙)

Ⅲ. 사례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구분	성별	연령	장애명	행동특성
정○○	남	27세	지적장애2	평소에 말이 없고 매우 위축되어 있음. 수동적인 행동이 많음
임○○	여	28세	지적장애2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려 함.
최○○	남	34세	지적장애1	뇌병변 장애 중복임. 본 센터 외엔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
황○○	남	25세	자폐성장애1	말과 행동이 매우 느리며 지시에 대한 반응도 느림 현재 간질약을 복용중이며 가끔 소 발작을 함
이○○	여	30세	지적장애1	교사의 말을 거의 듣지 않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따돌림을 받음
○덕○	남	25세	자폐성장애1	시간에 대해 매우 철저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병○	남	20세	지적장애1	이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음. 길을 지나가다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따라가거나 만지려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임
유○○	여	30세	지적장애3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매우 적극적임.

2. 진행내용

(1) 사례연구 방법

시 기	내 용	비 고
~3월 말	· 성교육 프로그램 계획	
4월~10월 말	· 사전 설문조사 · 총 16회 프로그램 진행 ⇒ 주 1회 50분 진행	
11월	· 사후 설문조사 · 사례연구 보고서 작성	

(2) 세부프로그램 내용

- ▶ 실시시기 : 매주 1회
- ▶ 실시요일 : 매주 목요일 11:00-11:50(50분 진행)

회기	목 표	프로그램명	진행방법	준비물	장소
1	심리적 탐색	나들 사랑하기	① 나와 너의 소개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기 ② 성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작성 자료	주간 보호실
2		나와 너 이해하기			
3		성충동 조절	이야기식 나눔		
4		성 정보 판단하기	교육비디오 통한 나눔	비디오 자료	
5		알고 싶어요	궁금한 점 질문 및 응답		
6	감정적 탐색	감정인식하기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	성 교육 자료	주간 보호실
7		감정표현하기	상황에 따른 올바른 감정표현 하기 : 역할극 실시		
8		미안한 감정표현 하기			
9		감정 배려와 대응하기			
10		감정조절하기			
11	기술적 탐색	데이트 상대 고르기	역할극 통해 실시		
12		데이트 신청방법			
13		데이트 시 유의할 점			
14	성폭력	성폭력이란	① 역할극을 통한 이해 ② 성교육 비디오 보고 나눔		
15		성폭력 이후에 생길 수 있는일			
16		성폭력 이후에 할 일			

IV. 연구결과

1.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들의 성 지식에 미치는 효과

1) 각 사례별 사전·사후 성 지식 총점 비교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후로 지적장애인들의 성 지식에 변화를 보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성지식 설문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정○○		임○○		최○○		황○○		이○○		○덕○		○병○		유○○	
하위영역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신체인지		80	80	70	70	70	70	70	70	65	67	80	80	80	80	74	74
신체기능		35	35	28	28	26	26	18	18	18	18	35	35	35	35	38	38
개인위생		70	77	28	41	18	53	35	40	12	59	70	77	22	77	56	62
신체구조		66	66	26	26	28	30	38	36	28	29	59	57	47	48	61	61
감정인식		18	35	15	19	16	19	10	10	19	20	32	31	19	19	29	31
신체변화		20	21	14	14	16	16	16	16	14	16	22	20	16	18	32	36
변화에 대한 반응		26	27	16	16	20	20	14	18	8	18	11	18	18	20	25	26
성 지식	사회적 측면	12	30	11	16	13	16	11	13	2	13	16	32	23	30	23	66
	신체적 측면	30	34	10	14	23	24	10	10	10	10	27	28	34	34	29	31
결혼		26	32	10	10	10	10	8	8	5	8	17	28	9	16	14	30
결혼생활		8	8	2	2	2	2	3	2	3	2	6	6	4	4	4	6
부부관계		6	8	2	2	1	2	2	2	1	2	5	8	3	4	8	7
문제성행동		8	19	2	10	1	10	1	5	1	5	8	23	1	8	3	12
총점		405	472	234	268	244	298	236	248	186	267	388	443	311	393	396	480
변화 (사후-사전)		67		34		54		12		81		55		82		84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장애인들은 전부 성 지식 증가를 나타냈다. 하위영역 중 신체인지, 신체기능, 신체구조, 신체변화, 결혼생활 등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개인위생, 감정인식, 신체변화에 대한 반응, 성 지식, 문제성행동에 대해서는 사전검사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 분석

총 16회기 동안 진행된 성교육프로그램은 심리적 탐색(1-5회기), 감정적 탐색(6-10회기), 기술적 탐색(11-13회기), 성폭력(14-16회기)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자들의 활동 참여도, 담당자의 관찰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회기 안에서 관찰되었던 개인의 변화들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 요소		회기별 변화내용	
		참여태도	담당자의 관찰내용
정 ○ ○	심리적탐색 (1-5회기)	1-2회기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매우 지루해함. 3회기부터는 부적 질문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끝난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함.	c't는 매우 소극적이며 질문에만 네, 아니오로 답하는 정도임. 그러나 3회기부터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감정적탐색 (6-10회기)	c't는 중간중간 농담을 하면서 처음 회기에 비해 매우 편안히 프로그램에 참여함. c't는 거절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함.	c't는 감정조절이 제대로 안되어 직장을 퇴사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사전에 안 담당자는 c't가 적절한 상황에서 감정인식 및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술적탐색 (11-13회기)	역할극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성의 대상자들이 전부 c't와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였으나 이들 매우 부담스러워 함.	c't는 임○○대상자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이번회기에는 매번 같이 짝을 함. 늘 무표정이었던 c't는 조금씩 웃는 모습이 보임.
	성폭력 (14-16회기)	매우 적극적인 태도들 보임. 프로그램 시간외에도 성에 대해 그림을 통해 표현을 함.	c't는 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처음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많이 표현함.
임 ○ ○	심리적탐색 (1-5회기)	c't는 담당자의 질문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잘 모르겠다는 답을 잘 함.	c't는 다른 대상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면서도 얼굴이 빨개짐.
	감정적탐색 (6-10회기)	감정표현을 힘들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정○○대상자와 같은 이유로 회사들 퇴사한 c't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감정인식 부분이 매우 낮음.
	기술적탐색 (11-13회기)	정○○대상자와 짝이 되어 역할극을 참여하였으며 매우 즐거워 하였음.	마음에 맞는 대상자와 함께함으로써 그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들 함.
	성폭력 (14-16회기)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예전에 전월역에서 어떤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할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c't는 성폭력 시 대처방안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졌으며 예전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됨.
최 ○ ○	심리적탐색 (1-5회기)	프로그램 참여내내 웃기만 함.	담당자의 질문에 웃기만 하고 답을 안함.
	감정적탐색 (6-10회기)	여전히 프로그램 참여시 웃기만 하고 소극적인 태도들 보임.	c't는 다른 대상자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깊게 들을 뿐 표현을 잘 안함.
	기술적탐색 (11-13회기)	관심을 제일 많이 보인 영역임. 이성과 데이트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함.	c't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으로 사료됨.
	성폭력 (14-16회기)	예전보단 의사표현을 조금씩 함.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실질적인 표현은 많이 하지 않음.

변화요소		회기별 변화내용	
		참여태도	담당자의 관찰내용
황 ○ ○	심리적탐색 (1-5회기)	프로그램 시 담당자의 질문에 '몰라요'라는 말을 많이 함.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c't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참여자체를 매우 힘들어함.
	감정적탐색 (6-10회기)	타인의 감정에 대해 인식 못함.	c't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
	기술적탐색 (11-13회기)	c't는 프로그램 중간에 자신은 결혼할 이성친구가 있다는 말을 함. 누구냐는 말에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더 이상 말을 안함.	성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성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성폭력 (14-16회기)	c't는 이○○친구가 자꾸 김밥집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c't는 싫다고 표현하는데도 자꾸 좋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함.	c't는 주제와는 다른 말을 자꾸 하며 프로그램 주의를 흐트렸으나 프로그램 시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지할 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 ○ ○	심리적탐색 (1-5회기)	프로그램 참여가 전혀 안됨. 참여시 갑자기 소리들 지르거나 전혀 주제와는 다른 얘기들 해서 다른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가 안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 봉사자가 옆에서 제재함.
	감정적탐색 (6-10회기)	주로 담당자와 소통함.	성 인식보다 프로그램 참여시 긍정적인 반응을 피하는데 목표들 됨.
	기술적탐색 (11-13회기)	역할극 시 c't는 남자 봉사자와 짝이 되어 진행을 하였으며 매우 즐거워 함. 이 후에도 계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같이 역할극을 하자고 떼들 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매우 큼.
	성폭력 (14-16회기)	거의 반응이 없음.	거의 반응이 없음.
○ 모 ○	심리적탐색 (1-5회기)	이 회기에는 참여하지 않음.	이 회기에는 참여하지 않음.
	감정적탐색 (6-10회기)	프로그램 시간에 시계들 자꾸 보거나 하품을 하는 등 매우 지루해함.	c't는 경증장애로 나누는 얘기들은 다 안다라는 표현을 가끔하며 지루해 하였음.
	기술적탐색 (11-13회기)	역할극을 하면서 혼자 킥킥 많이 웃음.	담당자는 c't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노력함.
	성폭력 (14-16회기)	c't는 성폭력에 대한 질문 시 매우 단답적이며 모범적인 답안을 계속 얘기함.	c't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참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대상자들의 얘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 앉아있음.

변화요소		회기별 변화내용	
		참여테도	담당자의 관찰내용
○ 병 ○	심리적탐색 (1-5회기)	성 정보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음 컴퓨터 개팅도 매일 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고 섹스에 대해 매회기 때마다 물어봄.	c't는 학교 졸업 후 약 2년정도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음란물을 많이 접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적절한 지 도가 필요함.
	감정적탐색 (6-10회기)	c't는 이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 였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했음.	다른 그룹대상자들의 얘기를 듣고 c't 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함.
	기술적탐색 (11-13회기)	c't는 이 시기에 정신과 약복용 부 작용으로 프로그램 시간내내 졸음.	성적인 집착과 환청 환각으로 인해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함.
	성폭력 (14-16회기)	c't와 성과 관련해서 법과 사회적 제도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였으며, c't는 그러한 법이 있었냐며 매우 의아해 함.	c't에게는 주입식의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약 부작용으로 인해 계 속해서 참여내내 힘들어함.
유 ○ ○	심리적탐색 (1-5회기)	프로그램 시간내내 매우 적극적으 로 참여함 질문에 대한 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도 하였 음.	c't는 다른 대상자들과 달리 매우 적 극적으로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임했 음.
	감정적탐색 (6-10회기)	프로그램 시 이성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냄.	c't 혼자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지므 로 담당자는 c't외에도 다른 대상자 들도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함.
	기술적탐색 (11-13회기)	역할극 시 다른 대상자들 리드함.	c't가 정○○에게 너무 관심을 보여 서 이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 외 시 간에 따로 얘기함.
	성폭력 (14-16회기)	성폭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 면서 c't는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표현을 함.	c't는 처음에 비해 다른 대상자들의 얘기를 주의깊게 듣는 행동을 보임.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서술한 사례연구들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건강한 성적 정체감 확립을 위
한 성교육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성 지식 척도 변화와 집단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인
별 변화들 분석한 결과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사후 성 지식 척도에서 8명 모두 성지식 증가를 나타내었다.

하위 척도 중 개인위생, 감정인식, 신체 변화에 대한 반응, 문제성 행동척도의 중

가폭이 대체로 컸으며, 이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각 과정에 따른 교육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둘째,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성교육프로그램 시 자유토론과 역할극을 통해 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회기가 진행될수록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성에 관련된 문제(채팅, 스팸문자 및 전화통화, 음란비디오 시청 등)를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올바르게 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점과 스팸문자나 전화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눔으로써 위험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다.

셋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참여태도 및 감정표현이 증가했다.

회기별 개인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적 탐색기(1-5회기)에서는 대부분 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였으나, 점점 회기가 진행될수록 개인감정표현이 언어나 각자의 독창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표현되어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들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회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총 16회기로 이루어졌으나 프로그램을 종결한 후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다소 짧은 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감정표현이 프로그램 중기부터 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활발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발산하여 정리 할 수 있도록 회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인식, 이성과의 만남, 성폭력 등의 내용에만 국한되어,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제에 따른 결혼생활, 부부관계 내용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 신현달(1996), 지적장애아의 성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상복(1996), 지적장애인과 성-욕구, 기대, 갈등-,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 5회 불릭 지적장애인 부모회 세미나자료집
- 이상훈(2003), 자폐성장장애아동을 위한 성교육,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제 24회 정서장애아 및 학습장애아 교육연수회 자료집, p.121-145